

‘총장 직선제 폐지’ 강행 김운수 전남대 총장 인터뷰

“직선 아니어도 대학 자율 경영 가능”

전남대학교가 전국 38개 국립대 가운데 마지막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를 결정했다. 김운수 총장은 구성원의 70%가 여전히 총장 직선제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폐지를 강행했다.

이를 놓고 대학 발전과 시대 흐름에 맞는 적절한 조치이자 결단이라는 학내외 평가가 주를 이룬 반면, 민주화의 아이콘으로서 전남대의 명예를 버린 굴욕적인 처사라는 일부의 반발도 있다.

광주일보는 8일 오전 전남대 총장실에서 김운수 총장을 만나 직선제 폐지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과 4년 재임기간의 소회, 대학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 모든 국립대들이 총장 직선제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의 압력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폐지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직선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이나 소규모 대학은 몰라도 국립대, 특히 전남대나 경북대 등 지역의 거점 국립대는 직선제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미 사회변화와 함께 민주화 과정을 겪었고, 모든 면에서 자율적으로 대학을 경영할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 자체가 민주적인 절차이고, 문제가 없었지만 거듭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면서 일각에서 각종 부작용이 생기고, 구성원 간 상호 불신과 반목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전남대 정도의 거점 국립대들은 직선제 총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율권을 가지고 대학을 경영할 능력이 있다.

직선제 총장이 아닐 경우 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거나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직선제 폐지 이후 합리적인 총장 선출 방안은 무엇인지.

▲학적이 개정되면 4년 후 20대 총장부터는 직선제가 아닌 방법을 통해 총장을 뽑게 된다. 새로운 선출 방안을 확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여운 수렴이 있을 것이다.

공모제가 되면 간접선거제가 되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어 연세대의 경우, 이사회가 총장 후보를 결정하더라도 교수회의 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총장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모제를 선택하더라도 신임투표 같은 절차를 적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반대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결정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대학 정서에 맞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총장도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아 추진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돈(예산 지원)을 위해 명예를 버린 선택이라



직선제 정치적 색채 띠어 불신·반목 등 부작용 낳아 공모제든 간접 선거제든 교직원 의견 수렴 있어야

며 비난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의 심경은.

▲직선제 폐지가 좋아서 하지는 않았다. 어렵고 힘들었다.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났고, 이 때문에 지금은 매일 위장약을 먹어야 하는 상태가 됐다. 1986년, 1987년 대학평의회 활동을 하며 직선제를 이끌어내는 데 한 몫을 했다. 무슨 업보가 많아서인지 이제 내 손으로 직선제를 거둬들이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 대학이 시련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 한사람이 짐을 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힘’과 역사적 명분 사이에서 조율점을 찾기 어려웠다. 전남대는 80, 90년대를 거치면서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 너무 많은 희생으로 인해 이후 연구, 공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전의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웠다. 위축되고 어려웠던 시기, 전남대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대학의 경영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스스로 살아남

아야 한다는 실리적인 선택에 눈을 돌린 것이다. 내부에서는 직선제 유지가 우세했지만 외부의 여론은 폐지가 우세했다. 상반된 생각 속에 많은 생각을 했지만 폐지로 몰리는 여론의 방향이 최종 결정을 하는데 많은 작용을 했다.

-국립대로서 사실상 국가 방침을 거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폐지를 국립대 중 가장 늦게 결정한 이유는.

▲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과 대학 구조개혁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부의 방침을 실행하고 있었다. 솔직히 초기에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뿐 상당 기간 동안 직선제 폐지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했다. 타 국립대의 상황을 살펴가며 어느 시점에 직선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 지 저울질도 했다.

일부에서는 일찍 결정하지 않아 학교가 피해를 봤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다른 대학 총장들같이 초기에 교수들과 만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지 못한 실책은 인정한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와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지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난과 반대도 중요하다. 충분히 반대하고 비난할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야 정부도 대학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까지 버텼던 경북대·부산대 등 거점대학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나름 대책을 논의했고, 전남대는 직선제를 폐지하더라도 최후에 하겠다고 주장했다. 구성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4년의 임기를 거의 마쳤는데.

▲한마디로 시원하다. 다만 학생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매일 20km에 달하는 행군을 하는 국토대장정에 참가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아픔을 들을 수 있었다. 전남대는 지역사회로부터 신임을 잃었다. (나는)지역사회의 믿음을 얻기 위해 주춧돌 정도를 엮었다고 생각한다. 다음 총장은 전남대가 지역사회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한다.

김 총장은 이미 수일 전에 집무실에서 개인 짐가와 서적 등을 모두 빼내고 마음의 정리를 마쳤다. 다만 다음 총장에게 도움이 될 대학경영 관련 서적 20권만 남겨놓은 상태다.

인터뷰를 마친 그는 임기(8월16일)가 끝나면 곧바로 전남대 봉사단과 함께 아이티로 봉사활동(18일~24일)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제심포지엄 개최식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8일 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는 국제심포지엄 개최식을 가졌다.

/연합뉴스

네덜란드관 전시품 여수시에 기증 하멜보고서·지구본·회화 등 27점

여수세계박람회 네덜란드관에서 만든 하멜보고서, 지구본, 17세기 지도, 풍속화가 안스테인의 작품인 ‘유쾌한 가족’ 등을 박람회 폐막 이후에도 여수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여수시는 박람회 참가국인 네덜란드국에 전시돼 있던 27점을 여수시에 기증키로 해 오는 11일 기증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김충석 여수시장 등 비롯해 폴 멘크펠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폴 정 네덜란드관 관장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드 전통음식 시식 등의 행사가 마련됐다.

여수시는 기증받은 전시품들을 오는 9월 4일 개관 예정인 여수시 종합 하멜전시관 기획전시실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품 기증 행사에는 지난 6월18일 네덜란드 날 행사에 참석한 피트 아이펠스 호르스 시장을 비롯한 폴 멘크펠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폴 정 네덜란드관 관장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여야 ‘김영환 고문 진상규명 결의안’ 발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은 8일 공동으로 ‘김영환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문 등 가혹 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결의안은 고문 등 인권유린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단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영환씨 등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국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중국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김씨에게서 외부충격으로 추정되는 타박 흔적이 발견돼 김씨가 중국당국의 고문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김씨는 이날 오후 전주에 있는 삼성병원에서 심음식 원장으로부터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광대뼈와 근육 사이에서 타박 흔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김씨는 “법의학 전문가와 전문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고문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관계를 소견 “이러면 ‘다음으로 드러날 경우 중국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의 여수엑스포
바다가 보이는 해상무대에서 펼쳐지는 캄페스티발에 스승과 제자인 이선희, 이승기가 초대됐다.
△FAO국제심포지엄 (컨퍼런스홀-오전 10시)
△아트센터 문화공연 (엑스포홀-오후 6시)
△팜페스티발-이선희, 이승기 (특설무대-오후 8시)
△빅오쇼 (해상무대-밤 8시50분)
△아제의 관람객 수=12만 3384명(8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객 수=731만5772명

이정희 진보당 대표

경찰, 소환 조사키로

경찰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 아련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ARS 여론조사 조작 사건과 관련,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표를 불러 경선 당시 캠프 관계자 등이 여론조사 부정 응답을 유도, 결과를 조작하는 과정에 지시를 내리거나 관여했는지를 추궁할 방침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전 대표 시절 당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이모씨 등 3명을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업무방해 등)로 7일 구속하고 부정 응답을 한 김모(35)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더 큰 세상, 깊은 감동의 서비스
다와옥션 www.daw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전기반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오후 : 저녁7시 (3개월 16주 과정 25만원)
강사 : 이 정 석 교수(저자직강)
목요특강 : 매주 목요일
오후 : 7시(교육참가시 확인요망)
(교재비포함 수강료는 1-2만원)
과목 : 세무,민법,부동산정책,기타
기본경매와 보수교육
수시모집생(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제)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금당 공인중개사 건물매도
•오양시설용 건물 동구 매지197 건평807 법인이전할 9억
•오양시설 등 직할, 화순군 도곡 매지 302평 건평 505평 4억7천
•총장로 수매, 매지 27 건평 30 공사기 1억9000 매도 1억7천
•오지동 소방서옆 3층 상가주택 매지11 건평105평 3억4천
•유동 로터리 매지 240 건평 818 대출 18억 병원, 사옥, 오양시설
직할 법인이전 24억
•누문동 일고 부근단층 상가 주택 매지 36 공사지가 1억 2500상가는 임대중이고 주택은 공실 1억
•양동신당과 여관 대출 2억 매지 89건평 256 공판가능 3억2천
•동구 금동 매지 100평 6층 건물 4160평 5억 7천
•북구 화양동 땅 719평 주택 2채 있음 생활등 직할
•담보용 필린, 춘천시 집합물건등의 지하 377평 병상기 34966천
감정12억 9천 법인이전 5억 8천
나대지
•총장로5가 상업지역 104평 주택은 철거해야함
원룸,생활주택직할 공사지가에 매도2억5600만원
•공판부지 광명군 해보면 1725평 국도 직할은 2억8천
•중동상업지역 106평 3거리 코너 공사지가 497천 매도 5억4천
•공판부지 나주시 반남면 잠봉지 5160 5억4천
•계림동 상업지역 155평 공사지가 6억3300 매도 5억
•신안동 전남대 앞 4거리 대교면 상업지역 249평 생활주택
형 오피스텔 직할 공사지가 9억 4천 매도 7억7천
시골주택 및 주택지
•화순 남면 매지76 주택은 수리해야함 1500만원
•장성 서삼면 금계리 매지 326평 건평 47 교환가능 1억3천
•보성군 대원사 입구 광주에서 25여분 거리 경관좋은
땅 505평 평당 17만원(3600만원) 예술인 창작작업에적당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공용센터 옆

수원지구 상가임대분양
1층~7층 (20평~210평)
분할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학원/병원 한의원/독서실 편의점/약국
분양임대시 특별할인중
교환,매매전문
상가
3억~100억까지
교환및 매매합니다.
토지/아파트/상가/기타
주)신한아이디 062)527-7600

역세권 상업지 토지급매
운천역 1분 코너
중심상업지 250평
최고위치!!
상가, 도시형 오피 적합
★매가 상담부 결정★
원룸매매(신축)
전대, 조대
쌍촌동
수원지구
5억부터
12억까지
062)961-3377

매매교환분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매수 매도 대기중
건축상담
예산 부족으로 건축을 그만두고 계시는 분! 부지를 가지고도 경향이 없어 건축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
호텔! 무인텔! 사우나!
빌딩! 주택! 상가건물!
건축비, 시공비 없어도
신축에서 준공, 분양까지!!!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도 마시고 모든 것을
지금 상담해 주십시오.
신축한 건물 신축 공사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원 상담받고 있습니다●
구입
함께 할 수 있는 성실하고 의지가
강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고물건(상가빌딩매매)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매지 180평 건평 873평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매지 501평 건평 1415평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매지 150평 건평 884평
* 서구 화정동 로마나아파트부근
매지 99평 건평 344평 룠 00실
* 남구 진월동 상가빌딩
매지 620평 건평 2181평
* 북구 신안동 선대정문 상가빌딩
매지 156평 건평 600평
* 북구 두원동 동강대후문 원룸
매지 71평 건평 98평 방15실
* 광산구 우산동 상가빌딩웨딩홀
매지 1741평 건평 94000평
* 광산구 신항동 보전대 부근
매지 630평 건평 460평
* 내주 남매동 상가빌딩
매지 1199평 건평 210평
광고물건(토지매매)
* 상무지구 차평동 매지 1000평
* 서구 서창동 매지 948평
* 북구 두원동 매지 500평
* 광산구 송산유원지부근
매지1010평
* 광산구 수완동 매지 10.737평
* 나주 금천면 월곡리 매지 3.200평
* 나주 왕곡면 옥곡리 매지1.900평
최상의 진원주택 직할 부지 매매
* 무인동 해제면 참매리
지도방향 바닷가부근
매지2.340평
* 창성군 남면 행정리 매지 500평
* 광안동 덕리리 매지 2.800평
956-6660-010-2139-6255

대인동심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점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1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